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4 pp. 275-283,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4.27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방안 연구: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현업활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찬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강사

A Study on the Training Plan for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Human Resource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 on work-site application of arte academy training program

Chan-Hee Ha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 인력들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내용 또는 연수방법을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의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업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 현업활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업활용은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으로 구분되는데, 간접적 활용이 직접적 활용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수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역량강화와 같은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지만, 연수에서 학습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접적 활용도 연수의 성과이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강화된 전문 인력들의 역량이 현장에 보다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검토하고 간접적 활용보다는 직접적 활용이 높은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esource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use the contents of Arts Academy training program in the field, an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training for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participants of the Arte Academy training program to investigate the actual application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verall application of the training was high. However, the work-site application was divided into indirect and direct applications. Indirect application showed higher results than direct application. This shows that the training is effectiv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articipants' personal competence, but they are somewhat lacking in applying the contents learned in the training directly in the field. Indirect application is a result of training and is a necessary part of strengthening competence. However, considering that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a consumer-oriented policy that enjoys culture and art, it needs to be strengthened more directly in the field, and the competence of the applicant should be applied to the field more smoothly.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needs to review and implement such a training that has a higher direct application than indirect application.

Keywords : Human Resource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e Academy, Work-Site Appli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 Manpower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han-Hee Han(Dongguk University Lecturer)
Tel: +82-2-2260-3733 email: hanchan2c@nate.com
Received January 3, 2019 Revised January 28, 2019
Accepted April 5, 2019 Published April 30, 2019

1. 서론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의 지원 비중을 높인 대표적인 정책이다.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과공부 외에 문화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왔다[1].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해왔다[2].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되는바[3],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학교 및 다양한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즉, 문화예술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이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문인력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이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문화예술 향유가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전문인력의 현장 배치 지원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의 역량은 학교 및 다양한 현장에서 수요자들에게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는 단순히 역량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이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도 정책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인력들이 연수내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며, 현업활용 분석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및 현업활용에 대한 논의

2.1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에 대한 논의

2005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 예술강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사회 예술강사 양성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해왔다.

2006년~2007년에는 상시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급 과정의 단계별 연수를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학교 예술강사와 사회 예술강사 과정이 통합되었으며, 기반시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예술강사의 연차별 연수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을 모듈화 하는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발해왔다[4].

이후 2012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과정을 종합하는 브랜드로서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가 출범하였다. 아르떼 아카데미의 목적은 학교와 복지시설에 출강하는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아르떼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트렌드 및 현장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5].

이를 위해 연수대상을 학교 예술강사, 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등과 같은 매개자에서 교원, 행정인력 등의 협력자, 그리고 예비 문화예술교육 인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6]. 연수대상에 따른 연수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연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 예술강사는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예술전공자들에게는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 예술강사는 각종 사회 시설 방문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예술 전공자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는 예술강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에 있어서도 예술강사들의 참여 비중이 높으며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아르떼 아카데미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대상의 범위 확대, 예술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한 집중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진행해왔다[7].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을 기획하고 사회문화적 변화 및 정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연수 평가는 크게 각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이들이 연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현업활용도 조사가 실시된다.

만족도 조사는 연수를 구성하는 각 단위인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을 측정하며, 이 결과는 연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만족도 결과가 연수의 성과로서 유의미한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감상판단을 최소화시키고, 측정의 신뢰성과 결과의 객관성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 현업활용도의 경우 현장에 적용 정도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족도 보다는 연수 성과 평가에 보다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의 질 제고',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한 창의적 리더와 인재 육성'으로 나타나는바[8], 연수의 목적 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인력들의 역량 강화, 현장에서의 활용을 측정하는 현업활용도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2.2 현업활용에 대한 논의

실무적 차원에서 현업활용 조사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업무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연수가 본인의 수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도움이 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9]. 한마디로 연수 프로그램을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현업활용은 연수에서 얻은 지식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된다[10]. 이는 연수 내용 또는 방법의 자기 해석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추상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관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부분인 지식 및 기술의 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내면의 향상 또는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된다.[1] 이러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업활용의 추상적 부분과 구체적 부분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아르떼 아카데미 현업활용도는 연수가 종료되고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연수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한다. 이론적 측면보단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현업활용도 평가를 살펴보면, 2015년 77.3점에서 2016년 70.4점으로 하락했고(6.9점 하락), 2017년에 87.5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결과(17.1점 상승)를 보여주었다.

이는 응답자들의 개인차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응답자 개인차에서 기인한다고 보기엔 응답자들의 수가 많고 3년간 급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차로 설명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연수 자체가 현업활용에 용이한 측면이 있거나 현업활용에 용이하지 못한 측면으로 인해 현업활용의 점수 차이가 급격할 수 있다. 가령 연수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보단, 연수 참여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 자신감 고취 등으로 구성되면, 실무적

1) 가령 "연수 내용을 아이들에게 바로 알려주었어요."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돼서 좋았어요. 예술강사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등으로 나타난다. 현업활용과 관련한 연수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유형의 진술들이 확인되었다.

차원의 현업 활용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업활용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하여 향후 연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업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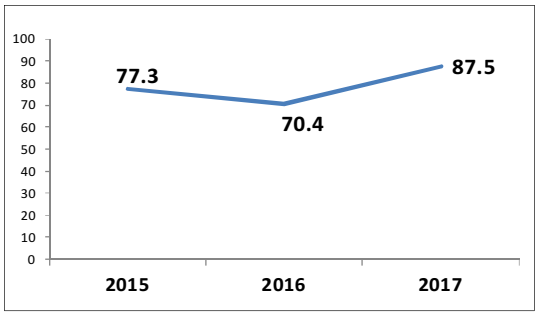

Fig. 1. Results of work-site application for the past 3 years

Table 1. Status of participants in work-site application survey for the past 3 years

	arts academy training program participants	work-site application survey	response rate
2015	2,633	800	30.4
2016	2,170	661	30.5
2017	1,576	453	28.7
MEAN	2,126	638	30.0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는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수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수내용을 현장(현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참여자는 1,892명이고 온라인 설문 참여자는 616명이다.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설문 내용은 충분히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수 대상은 예술교육 강사, 교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행정인력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해외전문가, 군지휘관, 지역센터 등의 구분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군지휘관의 경우 사례수가 많지 않았고 특수한 사례라 제외하였다. 해외전문가와 지역센터는 실제 연수에 참여한 대상들은 예술교육 강사, 교원, 기획자, 행정인력 등이어서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Table 2. Status of participants in the survey of work-site application

	arts academy training program participants	work-site application survey	response rate
total	1,892	616	32.6
instructor for art & culture edu.	932	356	38.2
school teacher	710	192	27.0
planner for art & culture edu.	194	43	22.2
administrative staff for art & culture edu.	56	25	44.6

3.2 주요변인의 측정

현업활용도 측정은 (사)문화다움이 선행연구[4, 6]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척도로서 간접적 활용, 직접적 활용, 전반적 활용으로 구분된다. 간접적, 직접적 활용은 각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반적 활용의 경우 단일문항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이유는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다.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목적은 연수 참여자들의 역량 향상,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현장의 질 제고 등으로 제시되는데 [8], 이러한 목적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간접적 활용으로 개념화하였고 구성된 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직접적 활용의 경우 연수 내용이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연수 내용과 방법이 배타적인 개념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나 연수 내용은 교육 콘텐츠 자체를 말하며, 연수 방법은 진행 방법 및 형식을 말한다. 전반적 활용의 경우 종합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가 현업활용에 도움이 된 정도를 측정한다.

Table 3. Measurement item of work-site application

	measurement level	measurement item
in direct application	make ability and knowledge	degree of making ability and knowledge
	understand environmental change	degree of understanding environmental change
direct application	application of training contents	degree of application of training contents
	application of training methods	degree of application of training methods
overall application	make work-site application	degree of making work-site application

* the measurement items were measured by the 5-point Likert scale

3.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등의 분석 방법을 진행하였다.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경력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을 구하였다. t-검증을 통해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연수 대상별로 주요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post hoc analysis)은 쉐페(Scheffe)를 사용하였다. 쉐페는 집단의 수가 다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엄격하게 분석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11].

마지막으로 현업활용도 조사 항목으로 IPA를 수행하였다. IPA 방법은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이지만 주로 만족도를 통해 분석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업활용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현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수행도(performance)로 설정했으며, 중요도(importance)는 측정 항목들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중요도가 설문조사가 아닌 통계적 방법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에 예측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12].2)

IPA 방법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중요도와 수행도(만족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정책 수행의 우순순위를 재고할 수 있게 한다[13]. 정책 수행의 우선순위가 도출되면 정책 목표의 달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IPA 방법을 활용하였다.

2) IPA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선행연구[12]를 참고할 것.

4. 분석결과

4.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들의 현업 경력은 7년 이상이 64.6%(398명)로 나타났고 5년 이상으로 범위를 늘리면 77.3%(476명)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다년간의 예술교육 현장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Career experience of participants in the survey of work-site application

	1year	1~2year	3~4year	5~6year	more than 7year	total
response	8	41	91	78	398	616
rate	1.3	6.7	14.8	12.7	64.6	100.0

주요변인들의 평균은 4.06점에서 4.39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인들의 평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81점에서 88점 사이에 분포). 주요변인들 중 연수 방법 활용 평균이 가장 낮고, 역량 및 소양 함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measurement level	MEAN
in direct application	make ability and knowledge (1)	4.39(.75)
	understand environmental change (1)	4.21(.92)
direct application	application of training contents (1)	4.11(.91)
	application of training methods (1)	4.06(.93)
overall application	make work-site application (1)	4.23(.88)
in direct application (2)		4.30(.76)
direct application (2)		4.08(.88)
overall application (5)		4.20(.77)

*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number of questions

4.2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 분석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것 과 같이 연수 방법 활용이 평균 4.06점으로 가장 낮으며, 역량 및 소양 함양이 평균 4.39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연수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역량 향상(강화)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수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수 내용 및 방법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간접적 활용

과 직접적 활용의 평균을 비교해도 직접적 활용의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대응 t-검정으로 확인해 보았다.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6. Paired t-test results on indirect and direct application differences

	MEAN	t	p
in direct application	4.30(.76)	8.713	.000
direct application	4.08(.88)		

이러한 분석이 함의하는 바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연수의 효과(역량 및 소양 함양, 환경 이해 등)는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연수를 통해서 학습된 여러 내용들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 활용 문항을 중위값으로 구분하여 중위값 이상 집단은 현업활용이 높은 집단, 중위값 미만 집단은 현업활용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3) 그리고 이 집단 구분을 통해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독립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간접적 활용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 활용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현업활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 간의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참조). 즉 현업활용이 높을수록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은 서로 수렴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Independent t-test results on low group and high group differences

	group	n	MEAN	t
in direct application	low high	111 505	3.29(.81) 4.52(.54)	-20.481
overall average	low high	111 505	3.01(.60) 4.46(.50)	-15.280
direct application	low high	111 505	2.88(.76) 4.35(.66)	-23.776

* all results are sign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3) 5점 척도에서 평균이 4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위값 4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4~5점은 높은 집단, 1~3점은 낮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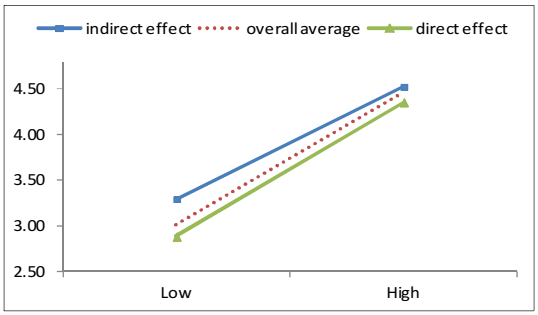

Fig. 2. Independent t-test results on low group and high group differences

전체 평균을 기준선으로 봤을 때, 현업활용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간접 활용이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 현업활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간접 활용과 직접 활용이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업활용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간접 활용과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업활용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간접 활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연수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측면보다 개인적인 역량, 소양, 환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연수에 참가했다고도 할 수 있다.4)

4.3 연수대상별 현업활용 분석

이러한 현업활용이 연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업활용은 연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어떠한지 사후분석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간접적 활용의 경우 교원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예술강사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기획자, 행정인력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획자, 행정인력, 예술강사 집단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활용은 교원과 예술강사의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직접적 활용의 경우 교원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예술강사 및 행정인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원은 기획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기획자도

4)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연수 자체는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미흡했던 연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술장르별로 현장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수가 현장 활용이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평가 점수가 보여주는 경향은 존재한다.

예술강사, 행정인력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업활용도의 경우도 직접적 활용의 경우와 동일한 사후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교원의 평균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예술강사와 행정인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집단들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현업활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8. ANOVA results of work-site applic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training program subject

	subject	MEAN	post-hoc	f
in direct application	instructor(a) teacher(b) planner(c) staff(d)	4.16(.78) 4.58(.64) 4.29(.77) 4.26(.69)	b>a b=c=d c=d=a	13.516
direct application	instructor(a) teacher(b) planner(c) staff(d)	3.97(.88) 4.33(.80) 4.16(.94) 3.58(.99)	b>a b>d b=c c=a=d	10.154
overall application	instructor(a) teacher(b) planner(c) staff(d)	4.06(.78) 4.46(.66) 4.23(.82) 3.97(.75)	b>a b>d b=c c=a=d	12.615

* all results are significant at .001 significance level
(a) = instructor for art & culture education
(b) = school teacher
(c) = planner for art & culture education
(d) = administrative staff for art & culture education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간접적 활용, 직접적 활용 등 현업활용 전반에서 교원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강사와 행정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집단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4.4 현업활용도 IPA 결과

현업활용도 IPA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현업활용 측정차원(측정문항 5개)들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도출한다. 도출된 상관계수는 중요도로 사용된다. 전반적 활용, 간접적 활용, 직접적 활용의 측정차원들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IPA 매트릭스 구성을 위해서 X축과 Y축의 기준점은 도출된 상관계수와 문항의 평균값으로 고정된다. 즉 상관계수의 평균값과 이미 구해진 측정차원들의 평균값은 다시 평균하여 기준으로 제시된다. 상관계수(중요도)의 평균값은 .732로 나타났고, 현업활용도 측정차원의 평균값은 4.19로 나타났다. 각각 구해진 평균값을 중심으로 IPA 매트릭스에 측정차원을 위치시켰다.

Table 9. Work-site application IPA

	performance	importance	IPA
1. make ability and knowledge	4.39	.756	keep up the good work
2. application of training contents	4.11	.746	concentrate here
3. application of training methods	4.06	.734	concentrate here
4. understand environmental change	4.21	.690	possible overkill
MEAN	4.19	.7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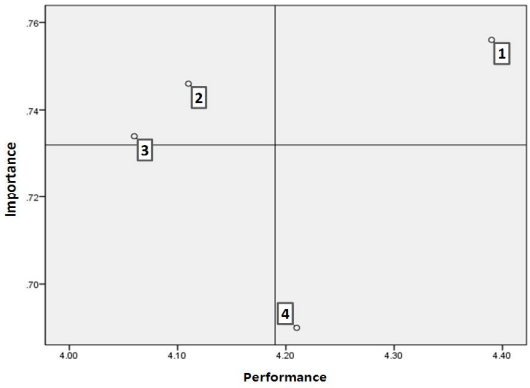

Fig. 3. Work-site application IPA

현업활용도 IPA 수행결과, 연수내용 활용(2)과 연수방법 활용(3)은 수행도는 낮고 중요도는 높아 우선개선 영역에 포함되었다. 연수내용과 연수방법활용은 현업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들로서 수행도가 낮다는 것은 현업활용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수의 현업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역량 및 소양 함양(1)은 수행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변화 이해(4)는 수행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과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자원을 개선 영역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인력들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내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의 시사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업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전반적 현업활용은 4.2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현업활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업활용은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으로 구분되는바, 간접적 활용이 직접적 활용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연수 참여자들이 연수를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수의 일차적 목적이 인력의 역량향상에 있기 때문에 연수의 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업활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를 중위값으로 구분하고,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비교했을 때 두 그룹의 현업활용의 차이는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현업활용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간접적 활용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현업활용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적 활용이 역시 높았지만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업활용이 낮은 집단의 현업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수대상 별로 현업활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간접적 활용과 직접적 활용 모두 교원들이 가장 높은 현업활용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강사들이 높은 현업활용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기획자나 행정인력은 낮은 현업활용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장 자체가 수요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와 직접관계가 덜한 기획자나 행정인력의 현업활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모든 연수대상들이 간접적 활용에 높은 점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 역량강화 및 교양 함양 등의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연수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IPA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수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내용 활용과 연수방법 활용 부분이 현장 활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게 연수를 운영해야 하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직접적 활용 강화를 위해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진행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향유는 물론이고 창의적인 인재도 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목적 달성 및 효과를 위해서도 현장에서 활용이 보다 용이한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CST, “2010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

[2] E. Y. Lee, “A Study on the changes and revitalization of Korea Arte & Culture Education Foundation’s art instructor support proj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2015.

[3] MCST, “Comprehensive Plan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2018-202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4] SOUTHERN POST, “Arte Academy Training Evaluati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5.

[5] KACES, “2014 AA ArtE Academy program book”,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4.

[6] SOUTHERN POST, “Arte Academy Training Evaluati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7.

[7] KACES, “Annual Report 2017”,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8.

[8] KACES, “Instructor Support Project for Art and Culture Education”, Education Training Center,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8.

[9] KM PLUS CONSULTING, “Analysis of Educational Performance Using the Latest Education and Training Evaluation Mode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10] D. Y. Kim, “Moderating Effects of Joint Committee on Standards for Educational Evaluation’s Program Evaluation Standar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Driven Evaluation 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Program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published docto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2012.

[11] H. C. Choi, "Statistical Analysis of Social Science", Nanam Publishing House, 2013.

[12] Y. R. Jeon, "An Analysis on Satisfaction Using Revised IPA and Destination Imag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28, No.2 pp.75-99, 2016.
DOI: https://doi.org/10.21581/jts.2016.05.28.2.75

[13] S. G. Lim, S. C. So, C. S. Le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Using IPA Analysi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5, No.2, pp.137-167, 2017.

한 찬 희(Chan-Hee Han) [정회원]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석사)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박사)
- 2017년 1월 ~ 2017년 3월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연수연구원
- 2017년 9월 ~ 2018년 9월 : 사단법인 문화다움 연구원

<관심분야>
문화산업, 예술경영